

## 군복 벗은 후에도, 군복 입은 지금도...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 제대군인 재취업부터, 현역 군인 및 전역 예정 장병 교육까지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달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현역 장병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육군 부사관으로 25년을 복무한 조승길(48) 씨는 전역 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 입학해 자동차 분야 기술을 습득했다. 처음 접하는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이론은 쉽지 않았지만, 실제 차량과 장비를 다루는 실습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자격증 4종을 취득했고, 현재는 르노코리아 강릉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다.

조 씨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정비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다음 도전을 준비 중이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최신 장비와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현역 장병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남캠퍼스는 2024년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분기별 1회씩 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026년에도 3월 40명에 이어 6월 50명 교육이 예정돼 있다.

춘천캠퍼스는 지난 4월 중순 제13기계화보병여단과 협업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드론 운용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대한 현장의 호응이 높아, 군부대와 일정을 협의한 뒤 하반기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를 매개로 군부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철수 이사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지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제대군인들이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기술과 자격으로 당당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으며, 현역 장병들의 역량 강화에도 국책 기술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 육군 부사관으로 25년간 복무한 조승길 씨가 재취업한 르노자동차 강릉정비사업소에서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전역예정 장병들이 자동화 장치 제어 및 반도체 공정 직업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에서 현역 장교 및 부사관들이 드론 운용 실습을 하고 있다.